

“실내 적정온도 26도 지켜주세요” 정부·기업, 절전문화 확산 나서

산업부 ‘에너지절약 캠페인’
MZ세대 겨냥 지비츠 굿즈 배포
고효율 가전 환급사업 등 추진
개그우먼 이수지 광고 모델 발탁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정부와 시민, 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을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서울 명동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시민단체, 기업 및 에너지 공공기관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적정 실내 온도 26℃ 준수 등 절약 행동을 통해 에너지 절약에 함께 하자는 캠페인의 메인 슬로건인 ‘온도주의’ 동참을 선언했다.

이날 온도주의 슬로건을 디자인한 광운대 이종혁 교수는 그간의 추진성과와 향후 에너지 절약 고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많은 분들의 노력에 힘입어 에너지 절약 대표 브랜드로 ‘온도주의’가 확산됐다”며 “앞으로 학교·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도주의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캠페인의 새로운 기념품으로 ‘온도주의 지비츠(gibitz)’를 배포하며 젊은 세대들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지비츠는 크룩스 신발의 구멍에 끼우는 장식용 액세서리로, 개성 표현이 가능해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찾아온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앞을 지나가는 시민들이 쿨링포그 밑을 지나며 더위를 피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올해 에너지절약 공익광고 모델로 선정된 개그우먼 이수지의 여름철 에너지절약 실천 다짐을 담은 영상 광고도 공개됐다.

올해 캠페인에는 LG전자, 롯데GRS 등 국민 생활과 접점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동참했다. 정부는 기업들과 함께 스마트앱을 활용해 ‘에너지 절약 챌린지’, ‘매장 내 ‘캠페인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이날 온도주의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매장을 방문해 온도주의 스티커를 부착하는 거리 캠페인도 진행했다.

정부는 내수진작과 민생경제 핵심

추경사업인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10%(30만원 한도)를 돌려주는 사업으로, 국회에서 추경이 의결되는 즉시 시행된다.

출범식에 참석한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최근 10년간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고 있는 기후위기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 추진 등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관리를 위해 만전을 기하는 한편, 기후민감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동서발전 “안전, 최우선 가치” 현장 중심 재해예방 활동 강화

‘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
위험요인 발굴·개선 체계 구축
지속가능 안전경영 본격 추진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1일 오후 울산 중구 본사에서 협력기업 및 외부 안전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제1차 안전경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경영위원회는 안전 분야 전문가 및 근로자 대표, 협력업체 등 안전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최고 심의·자문기구로, 안전보건 정책 수립과 점검을 총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전관리 현황과 중대재해 예방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동서발전의 2040 중장기 경영 전략의 새로운 가치체계 및 전략방향을 반영한 ‘신 안전보건경영방침’ 수립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고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신 안전보건경영방침은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서 안전보

건을 확립하고, 경영진의 리더십과 실행 기반을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에 법령 및 기준 준수와 지속적인 개선 의무를 명시하며, 근로자 및 협력사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방침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전사적 위험요인 발굴 및 개선,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 비상대응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성과지표로 연결돼 실질적 안전관리 활동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김봉빈 동서발전 안전기술부사장은 “내가 다치면서까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안전 구호를 생활속에 실천하며, 현장 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에너지 혁신을 선도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환경부, 여성·신규 축산인 맞춤형 교육

환경오염 예방 ‘햇살교육’ 실시

환경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이 2일 대전 동구에서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햇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햇살교육은 환경부가 주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이 주관하는 신규 공공 환경교육 과정이다. 기존 환경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신규 축산인 및 여성을 대상으로 축사 내 환경관리 및 가축 분뇨 적정 처리방법 등을 알려주는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다.

특히,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표로 ▲축사 환경관리 ▲양분관리를 위한 퇴비화 기술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적정 퇴비 관리 등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운 설명 중심의 교육자료와 시각 자료를 교육에 활용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축산분야 전문화 과정과 연계돼 실시됐다. 후계 및 여성 낙농인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 기장군의 한 축사

/뉴시스

조희승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분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든 축산인의 참여와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며 “햇살교육을 통해 그동안 교육 혜택에서 소외됐던 여성과 후계 농가의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우리 쌀·술 품평회 출품작 공모

‘K-라이스페스타’ 7개 부문 접수

농협이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출품작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출품을 희망하는 업체는 다음 달 1일까지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K-라이스페스타는 우리쌀의 우수성과 매력을 알리고 범국민 쌀 소비확대 붐을 조성하고자 농협이 지난해 도입한 행사다.

쌀 가공식품·우리술 품평회를 통해 우수업체를 발굴 및 시상하고, 참관객을 대상으로 쌀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올해 품평회 부문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세분화됐다. 쌀 가공식품은 조리식품(일반업체), 비조리식품(일반업체), 농협 시판식품 등 3개 부문이다. 우리술은 저도 발효주(9도 미만), 고도 발

효주(9도 이상), 약·청주, 증류주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또 다양한 제조사 및 제품 육성을 위해 시상 규모도 전년대비 12점을 확대한 총 28점으로 진행된다.

부문별로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선정된다. 대상작에 2000만 원 등 상금 총 2억6000만 원이 수여된다.

농협은 앞으로도 범국민 쌀 소비촉진과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우수한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육성할 수 있도록 K-라이스페스타를 정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K-라이스페스타는 오는 11월 28~30일 사흘간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다. 세부일정 및 홍보대사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농기자재, 태국서 230만달러 수출 성과

농어촌공사, 시장개척단 파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태국에 ‘K-농기자재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총 23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4~25일 태국에서 열린 현지 수출상담회에는 국내 농기자재 수출기업 15개 사가 참가했다. 농어촌공사는 태국 및 인접국가의 구매기업 52곳을 초청해 일대일 상담을 주선했다.

상담회에서는 총 219건, 2160만 달러 규모의 상담이 이뤄졌고 이 중 이를 12건, 230만 달러 규모의 MOU가 체결됐다.

김우상 농어촌공사 기반사업이사는 “앞으로도 국내기업의 수요와 해외 현지 시장을 정밀하게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태국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8%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농업국가이다. 친환경 자재와 스마트농업 기술 등 농기자재 수요가 증가세다. 또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이라는 지리적 이점 덕분에 한국 농기자재의 동남아 시장 진출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농어촌공사는 국내 농기계, 비료 등 농기자재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농산업수출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장개척단 파견을 비롯해 맞춤형 컨설팅, 해외 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들이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한국수력원자력

“안정적 전력공급 최선”

여름철 안전운영 결의대회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앞두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발전소 안전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수원은 지난 30일 경주 황룡원에서 황주호 사장을 비롯해 기술부사장, 5개 원자력 발전본부의 모든 발전소장을 포함한 주요간부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원전 안전운영 결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폭염과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에도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의문을 던지고, 확인하고, 점검할 것을 약속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한수원이 지난 6월 30일 하계 전력피크 대비 ‘발전소 안전운영 결의 대회’를 가졌다. /한수원